모의고사 지문 분석

부록

2023학년도 시즌6 제8차 이감 국어 모의고사 지문 분석을 수록하였습니다.

이 콘텐츠에 관한 저작권은 (주)이감에 있습니다.

[4~9] 인문 통합

인물성동이 논쟁과 조선 후기의 시대상

지문 평가

(가)에서는 인물성동이 논쟁에 따라 '인물성동론'과 '인물성이론'을 철학적 측면에서 구분해야 한다면, (나)에서는 '인물성동론'이 대두된 시대적 배경을 파악할 수 있어야 한다. 기본적으로 (가)의 내용을 정확하게 읽어 냈다면 이어지는 (나)의 내용은 수월하게 읽히게 구성되어 있으니, 결국에는 (가)를 제대로 읽어 낼 수 있었는지가 관건이다.

Keyword

(가) 인문 – 동양 철학 – 인물성동이 논쟁
인물성동이 논쟁, 주자, 이, 오상, 성, 인물성동론, 인물성이론, 본연지성, 기질지성, 성즉리, 이간, 한원진, 기질을 초월한 층, 기질에 혼합된 층, 기질에 근거한 층

(나) 인문 – 역사학 – 낙론, 호론
노론, 낙론, 호론, 분별주의, 탕평책, 정전제, 지주제, 대민 교화론, 북학파

(가) 문단 1 인물성동이 논쟁이 촉발된 학문적 계기

1) 이간과 한원진 간의 **인물성동이(人物性同異) 논쟁**은 인간과 동물의 본성인 '성(性)'이 서로 같은지의 문제에서 시작하여 성인(聖人)과 범인(凡人)의 마음이 같은지 등의 문제로 이어지며 조선 후기를 관통하는 주요 논쟁으로 확대되었다.

맥락 짚기 ▼ 지문의 초점이 처음부터 비교적 명시적으로 주어졌다. 인간[→ 성인, 범인]과 동물의 본성에 관한 이간과 한원진 각각의 주장이 어떻게 구분되는지 파악하는 것이 핵심이다.

2) 이 논쟁은 『중용』과 『맹자』에 대한 **주자**의 주석서에 담긴 상이한 주석을 계기로 촉발되었다. 주자는 『중용』에 대한 주석에서 인간과 동물이 생겨날 때에 천명(天命)인 **'이(理)'**를 얻어 반드시 지켜야 할 도리인 **오상(五常)**을 덕성(德性)으로 삼으니 이것이 **'성'**이라고 하여 '성'이 동일한 것처럼[→ 인성과 물성이 같은 것처럼] 언급하였으나, ……

➡ 인물성동이 논쟁은 성[→ 맥락상 '본성, 마음']에 대한 주자의 해석이 두 가지로 갈렸던 데에서 비롯된다.

➡ 먼저 『중용』에 대한 주석에서는 인간과 동물이 모두 '오상'을 덕성으로 삼았다고 하여 인간과 동물의 '성'이 같다고 설명했다.

3) …… 『맹자』에 대한 주석에서 "동물이 어찌 '이'를 말하겠는가."라고 하며 인성(人性)과 물성(物性)이 서로 다른 것처럼 말한 것이다.

➡ 반면 『맹자』에 대한 주석에서는 동물의 성[→ 물성]에는 '이'가 포함되어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 즉 인간과 동물의 '성'이 다르다는 것이다.

(가) 문단 2 이간의 인물성동론

1) 이간은 『중용』에 대한 주석을 근거로 인간과 동물의 '성'이 같다는 **인물성동론**을, 한원진은 『맹자』에 대한 주석을 근거로 **인물성이론**을 주장하였다.

맥락 짚기 ▼ 이간과 한원진이 각각 어떤 관점을 택했는지가 명시되었으니, 묶어서 이해하자.

> 이간[→ 인물성동론] : 인성 = 물성
> 한원진[→ 인물성이론] : 인성 ≠ 물성

2) 이러한 차이는 만물의 생성과 본성에 관한 성리학적 기초 개념들인 **본연지성(本然之性)**과 **기질지성(氣質之性)**, '이'에 대한 서로 다른 이해에 기인한 측면이 크다.

➡ '본연지성, 기질지성, 이'는 성리학적 개념들로, 조선 후기의 철학자인 이간과 한원진 모두 해당 개념들을 수용한다. 다만 각자가 그 의미를 다르게 이해했기에 서로 다른 주장을 펼치는 것이다.

3) 성리학의 기본 명제인 **'성즉리(性卽理)'**에 대해, **이간**은 본연지성인 '성'이 곧 '이'라는 의미로 이해하였다. 인간을 포함한 만물의 보편적 이치인 '이'가 곧 본연지성이므로 인성과 물성 간에 차이가 없다는 것이다.

➡ 성즉리에 대한 이간의 해석이다. 새로운 내용은 아니다. 결국에는 동물의 '성', 인간의 '성' 모두 곧 '이'라서 인성과 물성이 같다는 내용이기 때문이다[문단1–2].

➡ 다만 '본연지성'에 대한 설명은 새로운 내용이다. 인성과 물성 간에 차이가 없다는 것의 근거로 '본연지성'에 차이가 없다는 것을 제시하고 있다.

주목 ▲ 이간의 해석에서 인성과 물성이 같은지 다른지를 따질 때의 '성'이 가리키는 것이 바로 '본연지성'인 셈이다.

> 본연지성 = 본성 = '성'

4) 그러나 '성'이 개별적인 기질에 구속되어 그 본성을 온전히 드러내지 못하면 각각 상이한 양태로 드러난다. 이간에 따르면 이때에 드러난 '성'은 인간과 동물뿐 아니라 성인과 범인 간에도 차이가 있는, 기질지성이다.

➡ 이어서 '기질지성'에 대한 설명이다. 이간이 보기에 '성인'과 '범인'의 본연지성은 모두 '이'로 그 내용이 동일하다. 다만 성인의 기질은 깨끗하여 그 본성이 그대로 드러나지만, 범인의 기질은 혼탁하여 그 본성이 그대로 드러나지 않는다. 이것이 성인과 범인의 차이점이라고 본 셈이다.

➡ 본연지성이 그 개체의 본성이라면, '기질지성'은 그 개체의 기질에 따라, 본성이 실제로 어떤 모습으로 드러나게 되는지에 대한 것이다.

> 기질지성 = 개체마다 드러난 본성의 모습

(가) 문단 3 한원진의 인물성이론

1) 이와 달리 **한원진**은 '이'가 '기'에 내재됨으로써 '성'이 성립하는 것으로, 즉 '성'이 '이'에서 유래하는 것으로 보았다. '기'의 영향하에 있는 '이'는 천명으로서의 순수한 '이'와는 다른 것이다.

➡ 의식적으로 이간의 관점과 구분해서 이해해야 한다. 먼저 한원진은 '성'이 곧 '이'라고 보는 대신에 '성'이 '이'에서 유래했다고 보았다. 즉 본성이 '이'와 관련이 있는 것은 맞지만 '이'와 같지는 않은 것이다.

주목 ▲ 앞서 이간의 관점에서는 '본성'이란 개체의 기질과 독립된 것으로, 순수한 '이'를 가리키는 것이었다[문단2–3]. 반면 한원진은 애초에 '본성'을 개체의 기질[→ 맥락상 '기']을 포함한 개념으로 파악한 셈이다.

이간의 본성	한원진의 본성
개체의 기질과 독립된 순수한 '이'	개체의 기질의 영향을 받는 '이'

2) 한원진은 '성'을 '기질을 초월한 층', '기질에 혼합된 층', '기질에 근거한 층'으로 구분하였다. **'기질을 초월한 층'**은 만물의 보편적 이치인 순수한 '이'로서 '성'이라 일컬을 수 없다.

➡ 한원진은 '이'를 다음 세 가지로 구분했다. 먼저 '기질을 초월한 층'은 '이'에 대응한다. 이는 개체의 기질에 영향을 받지 않는 '순수한 이'를 가리키는 것으로, 한원진의 관점에서 '성'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다. 따라서 명목상으로는 '성'에 해당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성'에 해당하지 않는 개념이다.

이 콘텐츠에 관한 저작권은 (주)이감에 있습니다.

3) **'기질에 혼합된 층'**은 개체들의 개별적 특성으로 기질지성에 해당한다.

➡ 이간의 관점에서 기질지성이란 개별적인 기질의 영향을 받아 드러난 본성의 모습이었다[문단2-4].

➡ 반면 한원진의 기질지성은 개별자를 고유한 것으로 특정하는 성질로서, 이간의 기질지성과 구분된다. 이를테면 이간의 기질지성은 인간과 동물을 구분하거나 성인과 범인을 구분하는 정도의 본성이라면, 한원진의 기질지성은 각 사람마다 구분되는 특성인 셈이다.

4) **'기질에 근거한 층'**은 '이'가 '기'에 근거하고 있음에 따라 동류(同類)의 존재들이 갖는 유적 본성을 말한다. 한원진은 인성과 물성이 다름을 말하는 이것이야말로 본연지성이라고 보았다.

맥락 짚기 한원진이 구분한 '성'의 세 가지 층위 중 가장 주목해야 할 부분이다. 인물성동이 논쟁은 인간과 동물의 본연지성이 서로 같은지를 따지는 것이기 때문이다.

➡ 한원진에 따르면 애초에 '성'은 기질의 영향을 받는다[→ 순수한 '이'라고 볼 수 없다.]. 다만 개별적인 인간들의 '성'은 어느 정도 비슷한 면이 있어서 이를 묶어서 '인간의 본연지성'이라고 할 수 있고, 마찬가지로 개별적인 동물들의 '성'을 묶어서 '동물의 본연지성'이라고 할 수 있다.

➡ 이때의 '인간의 본연지성'과 '동물의 본연지성'이 다르다고 봤기 때문에 한원진은 '인물성이론'을 내세운 셈이다.

	이간	한원진
성즉리	성 = 이	성 ← 이[→ 성 ≠ 이]
이	만물의 보편적 이치	만물의 보편적 이치 [→ 기질을 초월한 층]
본연지성	성 = 이	기질에 근거한 층
기질지성	기질의 영향을 받은 이	기질에 혼합된 층

(나) 문단 1 인물성동이 논쟁과 당파 분열

1) 인물성동이 논쟁은 청이 안정됨에 따라 북벌론이 현실성을 상실한 시기에 벌어졌다. 학문적으로는 인성론에 대한 것이지만 정치적으로는 남인, 소론에 맞서는 과정과 맞물려 **노론**이 낙론과 호론으로 나뉘는 내부 분열을 낳았다. 인물성동론은 한양인 낙하에 사는 유학자들의 이론이라는 뜻의 **낙론**, 인물성이론은 호서에 근거지를 둔 유학자들의 이론이라는 뜻의 **호론**으로 불렸다.

맥락 짚기 통합 지문은 (나)를 읽으면서 (가)의 내용을 그대로 활용할 수 있어야 한다. 다시 말해 노론의 분열로서 등장한 '낙론, 호론'이 인물성동이 논쟁과 관련해 각각 어떤 관점을 취했을지 의식하면서 지문을 읽어 가야 한다.

➡ 역사적 맥락이나 이름의 유래 등은 부차적인 정보이고, 낙론은 '인물성동론'에 호론은 '인물성이론'에 해당한다는 정보가 핵심이다.

2) 노론은 본래 의리를 중시하였는데, 호론 계열은 **분별주의**에 기초하고 있어서 의리에 따라 다른 당파들과의 타협을 거부하는 배타성을 띠었다. 이는 영조, 정조 당시에 고르게 인재를 등용하려는 **탕평책**의 취지와 거리가 있는 모습이었다.

➡ 낙론과 호론은 모두 '노론'에서 비롯되었으므로 공히 '의리'의 중요성을 인정한다. 다만 의리를 중시함으로써 도달하는 결론에 차이가 있었다. '호론'은 의리를 근거로 탕평에 반대했다면……

3) 반면 낙론 계열은 교화 중심의 인성론에 근거하고 있어서 의리가 중심이 되는 탕평 정치의 실현을 주장하였다.

➡ '낙론'은 오히려 의리를 근거로 탕평을 옹호했다.

낙론	호론
성리학적 의리 중시	
인물성동론	인물성이론
교화 중심, 탕평 옹호	분별주의, 탕평 반대

(나) 문단 2 호론의 수직적이고 엄격한 계층관

1) 호론과 낙론의 두 계열은 사회 계층에 관한 개혁에 대해서도 상반된 관점을 보였다. **호론** 계열은 수직적인 신분관을 유지하고 있었다. 그래서 신분과 무관하게 토지를 균등히 분배하는 **정전제**의 도입 여부가 낙론 계열은 물론 관료들 사이에서 논의되고 있을 때에, 한원진은 이에 반대하고 기존의 **지주제**를 옹호하였다. 호론 계열은 인간과 동물, 성인과 범인을 분별해야 하고 '성' 위에 위계상 천명이 있듯 성리학적 질서에 따라 엄격한 분별 정책을 취해야 사회 혼란을 일소할 수 있다고 본 것이다.

➡ 호론 계열은 '인물성이론'에 근거하여 성인과 범인을 구분했다. 이들에 따르면 인간의 본성은 순수한 '이'가 아니라 개별적인 기질의 영향하에 있는 것이다[(가)의 문단3-1)].

➡ 즉 성인과 범인은 기질이 다르므로 본성도 다르다[→ 물론 유적 본성의 측면에서는 동일하지만, 기본적으로 둘의 본성은 구분되는 것이 맞다.]. 이렇게 성인과 범인의 '다름'에 주목하여 '수직적인 신분관'을 여전히 유지한 셈이다.

2) 호론 계열은 중앙에서 위축되는 양상을 보였으나, 지주제에 기초한 중소 지주 세력의 지배력이 여전히 큰 지방 향촌 사회에서는 정치적 영향력을 유지할 수 있었다.

➡ 탕평 정책, 정전제의 도입 등이 논의되던 중앙 정치의 상황을 고려했을 때 호론 계열의 정치적 입지는 좁을 수밖에 없었다.

(나) 문단 3 낙론의 개방적이고 수평적인 계층관

이와 달리 **낙론** 계열은 호론 계열의 지나친 계층 분별주의를 비판하면서 성리학적 도덕 가치의 계층적 확산에 주력하였다. 양반인 사족만이 덕성을 지니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누구든 인간이라면 선천적으로 도덕적인 본성을 지닌다는 인성론에 따라 개방적인 사회 계층관을 표출한 것이다. 그래서 낙론 계열은 성리학적 도덕 실천의 길로 인도하는 **대민 교화론**을 주장하였고, 그들의 서원에서는 신분과 무관하게 배움에 뜻이 있는 자를 모두 받아들인다는 학규를 실행하기도 하였다.

➡ 반면 낙론 계열은 '인물성동론'에 근거하여 성인과 범인을 구분하되 그 본성은 동일하다고 보았다[(가)의 문단2-3)]. 즉 성인과 범인의 '같음'에 주목했다.

➡ 낙론 계열에서도 성인과 범인을 구분하기는 한다. 성인의 기질은 깨끗하여 본성이 그대로 드러나지만, 범인의 기질은 혼탁하여 본성이 그대로 드러나지 않는다고 보기 때문이다. 다만 여전히 본성의 내용은 '이'로 같으므로, 이들은 '교화의 가능성'을 인정하는 관점이다[문단1-3)]. 교화를 거치면 범인도 성인이 될 수 있다고 본 것이다.

(나) 문단 4 낙론의 영향과 북학파의 등장

1) 이러한 낙론의 관점과 실천은 신분제에 근간을 둔 조선 사회에 균열을 일으키기도 하였다. 이는 당시의 사회적 배경과 맞물린 결과였다. 당시는 수리 시설과 신농법의 보급으로 부농층이 성장하였고, 지역마다 막대한 부를 축적한 상인들이 등장하였다. 이렇게 새롭게

이 콘텐츠에 관한 저작권은 (주)이감에 있습니다.

성장한 계층을 체제 안으로 통합할 수 있는 새로운 인성론의 정립은 지배 질서의 위기를 극복하려는 지배층에게도 절실한 과제였다.

➡ 낙론 계열의 주장은 당시 조선 후기의 시대상과도 관련이 깊다. 즉 신분제에 따른 분별이 더 이상 수용되기 어려워졌기 때문에, 보다 개방적인 사회 계층관을 내세울 수 있는 인성론이 필요했던 것이다[→ 낙론 계열의 철학자들은 필요에 의해 '인물성동론'을 도입하고 내세웠다고도 볼 수 있을 것이다.].

2) 그런 점에서 낙론 계열의 개방적이고 수평적인 인성관은 18세기 조선의 사회 계층 변동을 포용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낙론 계열은 차츰 여러 당파와 협력하며 정국을 주도할 수 있었고, 청과의 적극적 교류를 주장하는 **북학파**가 태동하는 모태가 되기도 하였다.

➡ '인물성동론'을 주장한 낙론 계열이 조선 후기의 시대적 변화를 이끌었고, 그 흐름이 '북학파'와 맞닿는다는 마무리이다.

<보기> 분석

<보기> 문단

ㄱ. 오행은 '기'에 해당하는 재료이며, 오상은 오행 가운데에서 '빼어난 기'의 이치이다. 사람은 오행의 '빼어난 기'를 모두 얻어 오상의 덕성을 갖출 수 있으나, 동물은 혹 하나의 '빼어난 기'를 얻는 경우가 있을지언정 오행의 '빼어난 기'를 다 얻지는 못한다.

맥락 짚기 발문을 통해 각각의 견해가 어느 계열에 속한 유학자의 관점인지를 파악해야 함을 알 수 있다.

> 인물성동론[→ 낙론] : 인성 = 물성
> 인물성이론[→ 호론] : 인성 ≠ 물성

➡ 동물이 오행의 '빼어난 기'를 다 얻지는 못한다는 것은 물성이 인성과는 다름을 강조하는 주장이다. 이는 '인물성이론'을 주장하는 호론 계열의 견해에 해당한다.

ㄴ. 천명에서 유래한 것을 '성'이라 부르는 것은 아버지가 낳은 것을 자식이라 하는 것과 같다. 그런데 아버지를 자식이라 부르고 자식을 아버지라 부른다면 위계와 명분이 흔들려 윤리 법도가 거꾸로 되지 않겠는가?

➡ 천명[→ '이']에서 유래한 것을 '성'이라 한다는 것은 '성즉리'에 대한 '인물성이론'에서의 해석이다[(가)의 문단3–1)]. 이는 호론 계열의 견해에 해당한다. '수직적인 신분관'을 강조하고 있다는 점에서도 이를 확인할 수 있다[(나)의 문단2–1)].

ㄷ. 군자인 성왕이 간악한 자를 교화하고 원수를 신민으로 바꿀 수 있었던 것은 소인(小人)과 단절하지 않았기 때문에 가능하였던 것이다. 소인을 모두 단절하여 내버리면 소인으로 하여금 군자를 원수로 삼게 할 것이다.

➡ 군자[→ 성인]가 소인[→ 범인]을 교화해야 한다는 관점은 낙론 계열의 견해에 해당한다[(나)의 문단3].

∴ 낙론 계열의 유학자는 '인물성동론'을 주장한다. 즉 성인과 범인의 본성은 '이'로 동일하며[(가)의 문단2–3)], 성인과 범인을 '덕'의 유무로 분별할 수는 없다고 보았다. 누구든 타고난 덕성은 동일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⑤번 선지는 적절하지 않다. 성인과 범인의 분별은 '기질'에 의한 것으로, 교화란 맥락상 범인의 혼탁한 기질을 성인의 기질처럼 깨끗하게 함을 의미한다[(나)의 문단3].

[10~13] 기술

관계형 데이터베이스의 정규화

지문 평가

지문의 진행이 어느 정도 규격화되어 있기 때문에 첫 문단에서 '정규화'가 필요한 문제 상황과 그 원인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파악하였다면, 전체적인 흐름을 좇는 데에는 어려움이 없다. 2023학년도 9월 모의평가에서와 마찬가지로, 이러한 형태의 기술 지문은 단계적으로 주어진 정보를 처리하는 요령이 필요하다.

Keyword

기술 – 정보 기술 – 관계형 데이터베이스

관계형 데이터베이스, 테이블, 칼럼, 레코드, 기본 키, 이상 현상, 갱신 이상, 정규화, 제1정규화, 제2정규화, 종속, 결정자, 완전 함수 종속, 제3정규화, 이행적 종속

문단 1 관계형 데이터베이스의 기본 키

1) **관계형 데이터베이스**는 표 형태의 **테이블**들을 구조화하여 정보들을 저장해 둔 것이다. 테이블에서 각 열에 해당하는 **칼럼**은 속성이며 각 행에 해당하는 **레코드**는 객체에 대한 정보로, 레코드별로 객체가 지닌 속성값이 칼럼에 저장된다.

➡ 테이블은 다음처럼 여러 개의 칼럼과 레코드로 이루어진 표이다. 하나의 레코드에는 하나의 객체에 대한 각기 다른 속성값이 칼럼별로 나뉘어 저장된다.

	칼럼 1 ↓	칼럼 2 ↓	칼럼 3 ↓
레코드 1 →			
레코드 2 →			
레코드 3 →			

2) 데이터의 효율적인 활용을 위해 테이블에는 각 레코드를 고유하게 식별해 주는 칼럼이 **기본 키**로 지정된다. 예컨대 개별 학생들에게 고유하게 부여된 학생 번호와 같은 것이 기본 키로 지정될 수 있다. 다만 하나의 칼럼만으로 고유 식별이 불가능할 때에는 여러 칼럼이 묶여 기본 키로 지정된다.

➡ 기본 키는 각 레코드를 고유하게 식별하는 데에 필요한 것이다. 다만 각 레코드를 식별하기 위해 '둘 이상의 칼럼'이 필요할 수도 있는데, 그러한 경우에는 다수의 칼럼을 묶어서 기본 키로 취급한다.

문단 2 정규화의 필요성

1) 그런데 데이터베이스의 구조에 따라 그 운용 과정에서 불필요한 데이터의 입력, 필요한 데이터의 삭제 등 **이상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 특히 정보 수정 시에는 중복된 정보 모두가 일괄적으로 수정되지 못하여 논리적 모순이 나타나는 **갱신 이상**이 발생하기 쉽다.

➡ 데이터베이스에는 '이상 현상'이 나타나기도 하는데, 그중에서도 '갱신 이상'에 대해 더 자세히 설명하고 있다.

2) 이와 같은 이상 현상들을 최소화하기 위해 데이터베이스를 재구성하는 일련의 과정을 **정규화**라 한다.

맥락 짚기 지문의 초점이 주어졌다. 이상 현상[→ 특히 갱신 이상]을 최소화하는 해결 방안인 '정규화'를 통해 갱신 이상을 포함한 이상 현상들을 어떻게 해소할 수 있는지를 이해하는 것이 관건이다.

이 콘텐츠에 관한 저작권은 (주)이감에 있습니다.

- 문제 상황 : 갱신 이상
- 문제 원인 : 중복된 데이터의 일괄적 수정의 어려움
- 해결 방안 : 정규화

문단 3 제1정규화

1) **제1정규화**는 한 테이블의 각 칼럼에 저장된 데이터가 오직 하나의 값만 갖도록 레코드를 분해하는 것이다.

맥락 짚기 '정규화'가 이루어지는 일련의 과정에 대한 설명이 이어질 것 같다. '제1정규화'는 '제2정규화', '제3정규화' 등의 존재를 전제로 하는 표현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각 단계를 순차적으로 파악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2) 예를 들어 칼럼이 [학생 번호, 주소, 강의명]일 때, 학생 번호가 '3'인 학생의 강의명 칼럼에 '철학, 경제학'이 저장되어 있다면 이를 분해하여 {3, 서울, 철학}인 레코드와 {3, 서울, 경제학}인 레코드로 나눈다.

➡ 구체적인 예시가 주어졌으니, 문단1에서 살핀 테이블의 형태를 떠올리면서 그대로 따라갈 수 있도록 하자.

학생 번호	주소	강의명
3	서울	철학, 경제학
4	대전	경제학

⇩ 제1정규화

학생 번호	주소	강의명
3	서울	철학
3	서울	경제학
4	대전	경제학

3) 제1정규화를 하면 보다 효율적인 [데이터베이스의] 활용이 가능해지지만 중복되는 데이터가 늘어 이상 현상의 발생 가능성이 높아진다.

➡ 이렇듯 제1정규화를 거치면 객체가 지닌 속성값이 하나씩만 담기기 때문에 보다 효율적인 데이터베이스의 활용이 가능하다.

주목 다만 데이터의 중복이 늘어난다는 점에서[→ 여기서는 학생 번호 '3', 주소 '서울'이 중복되고 있다.] '갱신 이상'의 가능성도 높아진다. 애초에 데이터의 중복이 갱신 이상의 원인이었다는 점을 고려한다면[문단2-1)], 여기까지는 본격적인 정규화를 진행하기에 앞선 일종의 준비 과정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타당해 보인다.

문단 4 제2정규화

1) 제1정규화가 완료된 테이블에 대해 진행하는 **제2정규화**는 '완전 함수 종속'을 만족하도록 테이블을 분해하는 것이다.

➡ 제1정규화에서 '레코드를 분해'하여 새로운 레코드를 추가했다면, 제2정규화에서는 '테이블을 분해'하여 여러 테이블을 만든다.

맥락 짚기 제2정규화는 제1정규화가 완료된 테이블에 이루어진다. 여기서 다시 정규화의 단계적 진행을 확인할 수 있다.

2) **종속**은 우편 번호에 따라 그에 속하는 도시가 정해지는 것처럼 특정 칼럼이 **결정자**가 되어 다른 칼럼이 정해지는 것을 말하는데, **완전 함수 종속**이란 기본 키에 속한 여러 칼럼 중 일부만이 다른 칼럼의 결정자가 되어서는 안 됨을 뜻한다.

➡ 제2정규화를 이해하는 데 필요한 '완전 함수 종속'을 설명하기 위해 '종속'이라는 개념부터 차근차근 풀어 주고 있다. 마찬가지로 주어진 예시와 함께 이해하면, [우편 번호]는 [도시]의 결정자로 [도시]는 [우편 번호]에 종속되어 있다. 그러나 [도시]가 [우편 번호]를 종속시키는 것은 아니다. 도시, 구, 동 등까지 알아야 그에 맞는 우편 번호를 찾을 수 있기 때문이다.

주목 결국 '완전 함수 종속'이란 기본 키가 나머지 칼럼 중 어떤 칼럼의 결정자가 되려면 항상 기본 키 전체가 그에 대한 결정자가 되어야 함을 뜻한다. 여기서 핵심은 '전체'에 있다. 기본 키는 하나의 칼럼이 아닌, 다수의 칼럼으로도 구성될 수 있기 때문이다[문단1-2)].

3) 예컨대 칼럼이 [학생 번호, 강의 번호, 강사명, 출석 횟수]인 테이블에서는 학생 번호와 강의 번호의 조합이 기본 키이다. 그래야 출석 횟수를 포함한 레코드의 고유한 식별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강사명의 경우 기본 키의 일부인 강의 번호에 따라 정해지므로, ……

➡ 이해를 돕기 위한 예시로 테이블의 형태를 떠올리면서 정보를 처리해야 한다.

학생 번호	강의 번호	강사명	출석 횟수
3	101	김**	3
4	102	박**	5
5	102	박**	4

➡ 이때 [학생 번호]만으로는 기본 키가 될 수 없다. [출석 횟수]는 그 학생이 '어떤 강의'에 출석한 횟수에 따라 정해지는 값이기 때문에 [학생 번호]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은 것이다. 따라서 [학생 번호, 강의 번호]의 조합이 기본 키로 채택된다.

주목 문제는 [학생 번호, 강의 번호]가 아닌, 기본 키의 일부인 [강의 번호]만으로도 [강사명]이 결정된다는 점이다. 즉 이는 '완전 함수 종속'을 충족하지 않는다.

4) …… 제2정규화를 거치면 칼럼이 [학생 번호, 강의 번호, 출석 횟수]인 테이블이 남고, 칼럼이 [강의 번호, 강사명]인 테이블이 분리되면서 강의 번호가 중복되지 않도록 정리된다.

➡ '완전 함수 종속'을 충족하지 않는 3)과 같은 테이블에서는 문제가 되는 칼럼인 [강사명]을 분리한다. 그리고 그것의 결정자로 기능하는 칼럼[→ 기본 키의 일부]을 복제하고, 이들을 별개의 테이블로 만든다.

학생 번호	강의 번호	출석 횟수
3	101	3
4	102	5
5	102	4

강의 번호	강사명
101	김**
102	박**

주목 핵심은 이렇게 별도의 테이블을 만드는 과정에서 데이터가 '중복되지 않도록' 저장이 이루어진다는 점이다. 정규화의 목적이 '중복된 데이터'로 인해 발생하는 '갱신 이상'을 최소화하는 데에 있음을 계속해서 의식해야 한다.

문단 5 제3정규화

1) **제3정규화**는 제2정규화가 완료된 테이블에 대해, '이행적 종속'을 없애도록 테이블을 분해하는 것이다. **이행적 종속**이란 을은 갑에 종속되고 병은 을에 종속되어서, 결국 병이 갑에 종속된 상태를 말한다.

➡ 마찬가지로 제3정규화는 제2정규화 이후에 이루어진다. 제3정규화에서는 '이행적 종속'을 없애는 것이 목적이다. 이것 자체가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마찬가지로 주어지는 예시를 통해 이해해야 한다.

➡ '완전 함수 종속'의 경우 '기본 키'가 결정자로 기능하는 경우에 대해서만 따졌다면, 여기서는 기본 키에 한정하지 않고 따지고 있음에 유의하자.

2) 가령 칼럼이 [학생 번호, 우편 번호, 도시]인 테이블에서 기본 키는 학생 번호이다. 우편 번호를 결정하는 학생 번호만으로 레코드가 고유하게 식별되기 때문이다. 도시는 학생 번호와 우편 번호의 조합이 아니라 우편 번호만으로 정해지므로, 이 테이블은 이행적 종속 상태에 있다.

이 콘텐츠에 관한 저작권은 (주)이감에 있습니다.

➡ 테이블의 형태를 떠올리면서 '이행적 종속' 상태도 확인하자. 먼저 기본 키인 [학생 번호]는 [우편 번호]의 결정자에 해당한다. 그런데 [우편 번호]는 [도시]의 결정자이기도 하다[문단4-2)]. 따라서 이 경우는 '이행적 종속'에 해당한다.

학생 번호	우편 번호	도시
3	01234	서울
4	34567	대전
5	34567	대전

3) 이를 해소하기 위해 기존 테이블의 칼럼에서 도시를 삭제하고, 칼럼이 [우편 번호, 도시]로 이루어진 별도의 테이블을 만드는 것을 제3정규화라 한다.

➡ 제3정규화는 더 이상 이행적 종속이 존재하지 않도록, 연속된 종속 관계에 있는 칼럼들을 별도의 테이블에 저장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주목 ▲ 일반화해서 표현하면, '갑 → 을 → 병'의 이행적 종속 상태에서 [갑, 을]로 구성된 테이블 하나, [을, 병]으로 구성된 테이블 하나를 마련하는 셈이다. 즉 제3정규화는 기본 키에 속하지 않은 어떤 칼럼이 나머지 다른 칼럼의 결정자인 경우에 그에 대해 테이블을 분리하는 것이다.

학생 번호	우편 번호
3	01234
4	34567
5	34567

우편 번호	도시
01234	서울
34567	대전

4) 제3정규화를 하면 학생의 우편 번호가 바뀌었을 때 해당 레코드에서 도시까지 수정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사라진다.

주목 ▲ 여기서도 '제2정규화'에서와 같이 중복된 데이터가 정리될 것이다. 애초에 '별도의 테이블'이 만들어지는 만큼 '34567, 대전'이 두 차례 저장될 이유는 없기 때문이다.

➡ 제3정규화를 거치면 가령 학생 번호 '5'의 우편번호가 '01234'로 바뀌어도 도시는 바꿀 필요가 없다. '도시'에 대한 정보는 이미 별도의 테이블에 저장되어 있기 때문이다. 만약 제3정규화를 거치지 않았다면, 일괄적으로 수정되는 일이 잦을수록 '갱신 이상'의 가능성도 높아졌을 것이다[문단2-1)]. 그렇기 때문에 '정규화'가 갱신 이상의 해결 방안으로서 유효한 것이다.

<보기> 분석

<보기> 문단

1) (가)와 (나) 모두 동일 학년만 대상이며, 기본 키는 학생 번호를 필수로 하여, 필요에 따라 칼럼들의 조합으로 지정된다.

맥락 짚기 ▼ 발문을 보면 (가), (나)는 아직 정규화를 완전히 거치지 않은 상태에 있다. 즉 각 테이블에 필요한 정규화가 무엇인지를 파악하고, 그에 따라 순차적으로 정규화를 적용해 볼 필요가 있다. 따라서 가장 먼저 (가), (나)의 상태를 판단해야 한다.

- 하나의 칼럼에 둘 이상의 값이 존재하는가? ⇨ 제1정규화
- 완전 함수 종속을 만족하지 않는가? ⇨ 제2정규화
- 이행적 종속 상태에 있는가? ⇨ 제3정규화

2) (가)

학생 번호	반	담임 교사
401	3	김**
502	3	김**
501	1	박**
402	2	이**

➡ 우선 (가)부터 판단해 보자. 여기서 기본 키는 [학생 번호]에 해당한다. 그것만으로도 각 레코드를 고유하게 식별할 수 있으므로, 하나의 칼럼만으로도 충분하다[문단1-2)].

➡ (가)는 하나의 칼럼에 하나의 값들만 존재하므로 '제1정규화'는 거칠 필요가 없다. 또한 기본 키가 하나이므로, 기본 키의 일부가 다른 칼럼의 결정자인 상황도 아니다. 즉 '완전 함수 종속'을 만족하기에 '제2정규화'도 거칠 필요가 없다.

∴ 다만 [학생 번호]가 [반]을 결정하고, [반]이 [담임 교사]를 결정하므로 (가)는 '이행적 종속' 상태에 해당한다. 따라서 '제3정규화'를 거쳐야만 한다. 그 결과 다음처럼 [반, 담임 교사]로 이루어진 별도의 테이블이 만들어진다. 따라서 ③번 선지는 적절하다.

학생 번호	반
401	3
502	3
501	1
402	2

반	담임 교사
3	김**
1	박**
2	이**

3) (나)

학생 번호	과목	교실	성적
501	B	101호	70
401	B	101호	85
402	A	102호	92
501	C	103호	75

➡ 이어서 (나)를 판단해 보자. (가)와 달리 기본 키는 [학생 번호]만으로 충분하지 않다. 문단4-3)의 예시에서와 같이 [성적]을 식별하기 위해서는 [학생 번호, 과목]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 (나)는 하나의 칼럼에 하나의 값들만 존재하므로 '제1정규화'는 거칠 필요가 없다. 그다음으로는 기본 키의 일부인 [학생 번호]나 [과목]만으로 다른 칼럼을 결정할 수 있는지를 확인해야 한다.

주목 ▲ 이때 기본 키의 일부인 [과목]은 [교실]을 결정한다는 점에서 문제가 된다. 즉 '완전 함수 종속' 상태가 아니므로 다음과 같이 '제2정규화'를 거쳐야만 한다.

학생 번호	과목	성적
501	B	70
401	B	85
402	A	92
501	C	75

과목	교실
B	101호
A	102호
C	103호

➡ 다만 이어서 '제3정규화'를 거칠 필요는 없다. 기본 키 전체가 여전히 [성적]을 종속하는 구조여서 이행적 종속이 나타나지 않기 때문이다.

이 콘텐츠에 관한 저작권은 (주)이감에 있습니다.

[14~17] 사회

고용 승계 기대권의 성립 여부

지문 평가

기간제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고용 승계 문제'에 대해 법리를 동원해야 하는 상황에서, 그에 대한 해결 방안으로 '고용 승계 기대권'을 도입하기까지의 논리적 흐름을 잘 따라야 한다. 특히 그 과정에서 '갱신 기대권'을 '고용 승계 기대권'과 연결하여 이해하되, 이 둘이 엄연히 별개의 개념임을 파악하는 것이 핵심이다.

Keyword

사회 – 법학 – 고용 승계 기대권

도급업체, 용역업체, 기간제 근로자, 갱신 기대권, 영업 양도, 고용 승계 기대권, 계약 갱신 합의 규정, 고용 승계 합의 규정

문단 1 고용 승계 문제

1) 기업들은 업무를 위탁하는 **도급업체**로서, 건물 관리나 청소 등의 업무를 **용역업체**에 위탁하곤 한다.

➡ 즉 다음과 같은 관계가 성립한다.

- 도급업체 : 특정 업무를 위탁하는 업체
- 용역업체 : 특정 업무를 위탁받는 업체

2) 그런데 도급업체가 용역업체를 변경하려 할 때, 기존 용역업체에 의해 고용되어 있던 기간제 근로자의 고용 승계 문제가 논란이 된다.

맥락 짚기 지문의 초점이 주어지는 대목이다. 이는 도급업체가 기존 용역업체를 새로운 용역업체로 변경하는 경우에 발생하는 문제 상황이다. 그에 대한 해결 방안을 모색하는 것을 지문의 초점으로 삼아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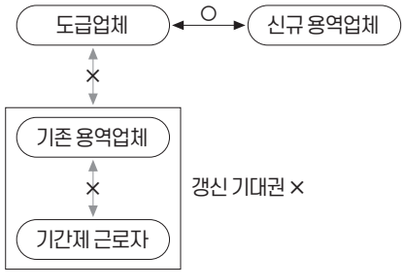
문단 2 갱신 기대권

1) **기간제 근로자**는 계약 기간 동안만 근로자의 지위를 갖는 것이 원칙이나, 근로 계약서에 계약 갱신을 명시하지 않았더라도 계약 갱신을 기대할 수 있는 객관적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갱신 기대권이 인정된다. 계약 종료 전후에 계약 갱신에 대한 공정한 심사를 요구할 권리인 **갱신 기대권**을 근로자가 행사했을 때 사용자가 합리적 이유 없이 갱신을 거절하면 부당 해고로 간주된다.

➡ '기간제 근로자'는 기본적으로 '갱신 기대권'을 갖는다. '갱신 기대권'이란 고용 계약에 대한 갱신을 기대할 수 있는 권리로, '사용자'는 합리적 이유 없이 [→ 공정한 심사를 거치지 않고] '기간제 근로자'의 근로 계약의 갱신을 거절할 수 없다.

2) 그런데 용역업체에 고용된 근로자는 해당 사업장의 사용자인 도급업체와 계약을 한 것이 아니어서 용역업체의 변경 시에 갱신 기대권을 인정받기 어렵다. 용역업체의 변경으로 기존 용역업체와 도급업체 간의 용역 계약은 물론, 기존 용역업체와 근로자 간의 근로 계약도 종료되기 때문이다.

➡ '갱신 기대권'은 일반적인 근로 계약 상황이나 용역업체의 변경이 없는 경우에 '기간제 근로자'가 주장할 수 있는 권리이다. 기존 용역업체가 지속적으로 용역 업무를 수행할 때 근로자가 이 업체를 대상으로 행사할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신규 용역업체'를 대상으로는 행사할 수가 없으므로, 용역업체 변경 시의 고용 승계 문제에 있어서는 적용될 수가 없다.



문단 3 고용 승계 문제에 대한 2017년 고등 법원 판례

1) 이와 관련하여 **2017년 고등 법원**은 기존 용역업체와 신규 용역업체 간에는 묵시적 영업 양도가 성립한다고 보고, 이를 근거로 고용 승계를 인정하는 판결을 내린 바 있다. 인적 · 물적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영업 일체를 이전하는 **영업 양도**의 경우에 고용이 승계되는데, 신규 용역업체가 용역 계약의 입찰에 참여한 것은 영업 일체를 양수하려는 의사를 지닌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것이다.

➡ '기간제 근로자의 고용 승계를 인정할 수 있는 법리'를 탐색하려는 상황이다. '갱신 기대권'을 적용할 수는 없으므로[문단2-2)], 묵시적 영업 양도[→ '묵시적 계약'에 의한 영업 양도]가 성립한다고 해석한 판례가 존재한다는 것이다.

2) 하지만 이 같은 경우를 영업 양도로 인정해서는 안 된다는 비판이 제기되었다. 본래 영업 양도는 명시적 혹은 묵시적 계약을 전제로 하는데, 두 용역업체 간 의사 합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 때문이다.

➡ '영업 양도'는 '명시적/묵시적 계약'의 존재를 전제로 하며, 계약의 존재는 영업 양도가 성립한다고 봐야 할 '두 용역업체 간 의사 합치'를 전제로 한다.

➡ 그러나 용역업체의 변경 시에는 '두 용역업체 간 의사 합치'를 확인할 수가 없다. 용역업체의 변경은 결국 '도급업체'에 의해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이다[문단1-1)]. 따라서 '묵시적 영업 양도'가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렵다는 비판이다.

도급업체와 '기존 용역업체' 간의 계약 종료
⇨ 도급업체와 '신규 용역업체' 간의 계약 성립
⇨ 기존 용역업체와 신규 용역업체 간의 의사 합치 ×

3) 또한 업무가 단순 노동이어서 근로자를 교체하더라도 업무 수행에 지장이 없는 경우는 영업 양도로 보기 어렵다는 문제도 지적되었다.

➡ '영업 양도'는 인적 동일성을 포함하는 것인데, 기간제 근로자의 업무 내용을 고려했을 때 인적 동일성을 갖추어야 한다고 볼 이유가 없다는 지적이다.

문단 4 고용 승계 문제에 대한 2021년 대법원 판례

1) 갱신 기대권은 통상 근로 계약의 내용과 체결 경위, 계약 갱신 실태, 업무 내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계약 갱신에 대한 신뢰 관계가 형성되었을 때에 인정된다.

➡ '갱신 기대권'이 인정되는 요건에 대해 상술하고 있다. 맥락상 이것은 '객관적 사정'에 해당한다[문단2-1)].

2) 이 점을 근거로 하여, 용역업체 근로자에 대해서도 신규 용역업체에 대한 **고용 승계 기대권**을 인정할 수 있다는 주장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고, 이는 **2021년 대법원 판례**에서 처음으로 인정되었다.

➡ 2017년 판례는 '갱신 기대권'을 고용 승계 문제에 적용할 수 없었기 때문에 '묵시적 영업 양도'를 끌어들였으나, 용역업체의 변경을 '묵시적 영업 양도'로 간주하기 어려웠기 때문에 비판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었다.

주목 이에 '2021년 대법원 판례'에서는 갱신 기대권을 토대로 하는 신규 권리인 '고용 승계 기대권'을 근거로, 고용 승계 문제를 해결하고자 한 것이다.

이 콘텐츠에 관한 저작권은 (주)이감에 있습니다.

3) 갱신 기대권과 달리 고용 승계 기대권의 법리는 사용자와 근로자의 밀착성에 있지 않고 업무가 수행되는 사업장과 근로자의 밀착성에 무게를 둔다. 해당 사업장에의 밀착성에 따라 고용 승계에 대한 신뢰 관계가 형성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것이다.

맥락 짚기 '고용 승계 기대권'의 법리는 어느 정도 '갱신 기대권'을 토대로 하는 것이지만, 이 둘은 분명히 구분되어야 한다. 갱신 기대권은 '근로자가 기존 용역업체에 요구하는 권리'이지만, 고용 승계 기대권은 '근로자가 신규 용역업체에 요구하는 권리'이기 때문이다.

갱신 기대권	고용 승계 기대권
사용자와 근로자의 밀착성 계약 갱신에 대한 신뢰 관계	사업장과 근로자의 밀착성 고용 승계에 대한 신뢰 관계

문단 5 고용 승계 기대권의 요건

1) 고용 승계 기대권은 신규 용역업체와 도급업체가 체결한 용역 계약의 내용과 체결 경위, 해당 사업장의 기존 관행, 업무 내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 인정 여부가 결정된다.

➡ '고용 승계 기대권'이 인정받으려면[→ '사업장과 근로자의 밀착성'이 확인되려면] 이렇게 다양한 요건들이 종합적으로 고려되어야 한다.

2) 인정에 따른 효과는 갱신 기대권의 경우와 동일하다.

주목 즉 근로자가 '고용 승계 기대권'을 행사했을 때 사용자[→ 신규 용역업체]가 합리적 이유 없이 갱신을 거절하면 부당 해고로 간주된다[문단 2-1)].

3) 다만 근로 계약에 **계약 갱신 합의 규정**이 있으면 바로 갱신 기대권이 인정되는 데 비해, ……

➡ '갱신 기대권'은 다양한 내용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인정되지만[문단 4-1)], 가장 확실한 것은 '계약 갱신 합의 규정'의 존재다. 즉 근로 계약서에 해당 규정이 존재하면 '계약 갱신에 대한 신뢰 관계'가 형성되었다고 볼 수 있다.

4) …… [도급업체와 신규 용역업체 간의] 용역 계약에 **고용 승계 합의 규정**이 있더라도 이는 용역 계약 당사자 간의 권리, 의무 관계만 발생시킬 뿐 근로자에게 고용 승계 요구의 권리가 주어지는 것은 아니다.

➡ 반면 용역 계약의 내용에 '고용 승계 합의 규정'이 포함되어 있다고 해서 '고용 승계 기대권'이 인정되지는 않는다. 이는 용역 계약의 내용은 계약 당사자인 '도급업체'와 '신규 용역업체' 간의 문제이지, '신규 용역업체'와 '근로자' 간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이다.

5) 그래서 용역 계약의 내용은 상대적으로 덜 중요하다. 해당 사업장에서 고용 승계 관행이 분명히 존재하는지, 근로자의 업무가 용역 계약의 주된 내용이면서 계속적 수행이 필요한 것인지 등이 고용 승계 기대권 인정의 주요한 판단 기준이 된다.

주목 '용역 계약의 내용'은 고용 승계 문제에서 그다지 중요하지가 않다. 즉 '사업장과 근로자의 밀착성'을 판단하는 데에 있어서는 고용 승계 관행의 유무와 근로자의 업무 내용이 어떠한지가 주요한 기준이 된다.

갱신 기대권	고용 승계 기대권
근로 계약의 내용 등 사용자와 근로자의 밀착성 계약 갱신에 대한 신뢰 관계	고용 승계 관행, 업무 내용 등 사업장과 근로자의 밀착성 고용 승계에 대한 신뢰 관계

[22~27] 현대시

(가) 「여름 뜰」

– 김수영 –

작품 평가

상당히 난해한 부분이 많은 작품이다. 전체적인 흐름을 잡아 가며 읽어야 한다. 제목인 '여름 뜰'은 다의적인 해석이 가능한 상징적 시어이다. 해석의 편의상 여기서는 '자유가 억압된 정치적 광장' 정도로 읽어 주자.

제 1연

무엇 때문에 부자유한 생활을 하고 있으며
무엇 때문에 자유스러운 생활을 피하고 있느냐
여름 뜰이여
나의 눈만이 혼자서 볼 수 있는 주름살이 있다 굴곡이 있다

➡ 화자는 '여름 뜰'에게 말을 건네고 있다. 부자유한 생활을 하며 자유스러운 생활을 피하고 있는 주체는 '여름 뜰'로도, 화자 자신으로도 이해할 수 있다.

➡ 화자는 홀로 '주름살'과 '굴곡'을 볼 수 있는 존재이다. 이 '주름살'과 '굴곡'은 시대의 부정과 불의를 의미하는 것으로도, 질곡의 역사를 의미하는 것으로도 이해할 수 있다. 어느 쪽이든 화자는 사람들 가운데 홀로 깨어 있는 존재인 것이다.

모오든 언어가 시에로 통할 때
나는 바로 일순간 전의 대담성을 잊어버리고
젖 먹는 아이와 같이 이즈러진 얼굴로[→ 두려움을 환기]
여름 뜰이여
너의 광대한 손을 본다

➡ '모오든 언어가 시에로 통할 때'에서 '시'로 통하는 '언어'의 주체를 화자로 본다면 이 구절은 '나의 모든 언어가 시로 통할 때', 곧 '자유에 대한 갈망을 향할 때' 정도로 읽을 수 있다.

➡ '광대한 손'은 '젖 먹는 아이'가 지닌 작고 연약한 이미지와는 대비되는 대상이다. '여름 뜰'을 정치적 광장의 의미로 읽는다면 '광대한 손'은 집단성이나 억압성을 떠올리게 한다. 즉 자유에 대한 자신의 갈망이 강해질 때 커다란 두려움을 안고 억압이 지배하는 정치적 광장의 모습을 보게 된다는 것이다. 화자가 두려움을 느끼는 상황이다.

참고 김수영의 시론에서 시인은 '자유'와 관련하여 자유는 절대적인 것이자 개인적인 것으로서 집단의 이름이나 질서라는 명목으로 자유를 제한해서는 안 된다는 견해를 펼쳤다. 또 이처럼 절대적이고 무제한적인 자유를 추구하는 언어가 바로 시의 언어라고 보았다.

제 2연

"조심하여라! 자중하여라! 무서워할 줄 알어라!" 하는
억만의 소리가 비 오듯 내리는 여름 뜰[→ 자유를 억압하는 목소리가 지배하는 사회]을 보면서
합리와 비합리와의 사이에 묵연히 앉아 있는
나의 표정에는 무엇인지 우스웁고 간지럽고 서먹하고 쓰디쓴 것마저 섞여 있다
그것은 둔한 머리에 움직이지 않는 사념일 것이다

➡ '합리와 비합리와의 사이에 묵연히 앉아 있'다는 것은, 그러한 상황 속에서 화자가 어떠한 행동에 나서고 있지 못함을 의미한다고 이해할 수 있다. 시인이 '자유'를 사회 질서나 집단성에 의해 억압되어서는 안 되는 것으로 보았음을 고려할 때, '합리'는 사회 질서에 부합하는 행동을, '비합리'는 그러한 질서에 반역하여 자유를 추구하는 행동을 환기한다.

이 콘텐츠에 관한 저작권은 (주)이감에 있습니다.

➡ '우스웁고 간지럽고 서먹하고 쓰디쓴' 감정은 자유를 위해 움직이지 못하는 화자 자신에 대한 것으로도, 정치적으로 억압된 '여름 뜰'에 대한 것으로도 볼 수 있다.

참고 이 작품은 반공주의가 팽배하던 1950년대에 쓰였다. 조심하고 자중하고 무서워할 줄 알라는 소리는 결국 반공주의의 목소리, 정확히 말하자면 반공주의를 내세워 시민들의 자유를 억압하는 목소리를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제 3연

무엇 때문에 부자유한 생활을 하고 있으며
무엇 때문에 자유스러운 생활을 피하고 있느냐
여름 뜰이여

➡ 제1연의 반복이다. 이제 화자의 태도가 의지적으로 전환되는데, 이 반복은 화자의 그러한 태도 변화를 부각해 준다.

크레인의 강철보다 더 강한 익어 가는 황금빛을 꺾기 위하여
너의 뜰을 달려가는 조고마한 동물이라도 있다면
여름 뜰이여
나는 너에게 희생할 것을 준비하고 있노라

➡ '크레인의 강철'을 시대적 억압으로, '달려가는 조고마한 동물'은 변화의 계기로 해석해 본다면, 시대의 억압에 맞서는 변화의 계기가 나타난다면 자신 역시 기꺼이 스스로를 희생하겠다는 의미로 읽을 수 있다.

제 4연

질서와 무질서와의 사이에
움직이는 나의 생활은
섧지가 않아 시체나 다름없는 것이다

➡ '질서와 무질서와의 사이에 / 움직이는' 생활을 하고 있다는 것은, '합리와 비합리와의 사이에 묵연히 앉아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을 말한다. 그러므로 '섧지가 않아 시체나 다름없는 것이다'는 그러한 자신에 대한 통렬한 비판이자 반성이다.

제 5연

여름 뜰을 흘겨보지 않을 것이다
여름 뜰을 밟아서도 아니 될 것이다
묵연히 묵연히
그러나 속지 않고 보고 있을 것이다

➡ 이제 화자는 자신 앞에 놓인 정치적 광장을 비난하거나 부정하지 않고, 그곳이 쇄신될 가능성 즉 권력의 기만에 흔들리지 않을 가능성을 믿으며 비판적으로 바라보겠다고 하고 있다.

[22~27] 희곡

(나) 「알」

– 이강백 –

수록 지문 평가

알레고리 기법을 활용하여 권력의 본질을 다루는 작품이다. 수록 지문은 한 인물이 공포와 명목상의 자유를 바탕으로 시민들을 기만하고 권력을 획득해 나가는 과정을 보여 주고 있다.

[앞부분의 줄거리] 박물관장은 알 속에 위대한 왕이 있지만 현 임금이 살아 있다면 위대한 왕이 왕위에 오르지 않을 것이라며 임금의 자결을 유도한다. 임금이 죽자 박물관장은 알 속에는 사실 무서운 공룡이 있다며, 시민들에게 다음 날 아침까지 알과 자신 중 한쪽을 왕으로 선택하라고 한 뒤 자리를 떠난다. 이에 시민들은 알 속에 무엇이 있는지를 놓고 밤새 결론이 나지 않는 토론을 벌인다.

시민 가 : 도대체 뭐요? 당신들은 헛소리로 시간만을 낭비했잖소?

시민 다 : (성을 벌컥 내며) 당신이 가진 의견을 말해 보구려!

시민 가 : 내 생각 같아서는……. (머뭇거리다가) 나의 의견이 없다는 것이겠지요.

시민 나 : 한심하군!

시민 가 : 미안합니다. 당신에게 좋은 의견이 있다면 말씀해 주십시오.

시민 나 : 나는 이렇게 주장하오. (큰소리로 말문을 열었으나 할 말이 없어서) 알 속에는 위대한 임금님이 아니면 공룡이 있다는 것입니다.

시민 가 : 당신이 가진 풍부한 지혜에 대해서 찬탄을 금하지 못하겠군요.

➡ 시민들은 누구도 알 속에 무엇이 있는지 결론을 내리지 못한다. 애당초 그것에 대해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으므로 이는 당연한 일이다.

군중들 : (공포의 소리) 해가 뜬다! (조금씩 떠오르는 태양이 알과 시민들을 점점 밝게 비친다.) (소리) 위대한 임금님이냐? 두려운 공룡이냐?

➡ '(소리)'라는 지시문을 통해 군중들의 모습은 무대에 보이지 않고 그들의 목소리만 들리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시민 라 : 무엇이냐고요? 우리의 지혜로써도 해결하지 못합니다. 도대체 우리에게 어느 것을 선택할 권리가 있는지 그것마저 의아로워집니다.[→ 알 속에 무엇이 있는지를 두고 하는 토론이나, 알의 정체를 모르는 상황에서 알과 박물관장 중 어느 한쪽을 왕으로 택하는 상황 자체가 기만이라는 통찰이다.] 시민 여러분, 우리의 진정한 불안은 공룡이 아니라, 우리의 지혜와 권리가 쓸모없어졌다는 데 주의하십시오. 우린 허수아비처럼 완전히 무력(無力) 상태 속에 빠져들게 되었습니다.[→ 시민들이 박물관장의 손 위에서 놀아나고 있으며, 박물관장이 시민들을 무력 상태에 몰아넣고 있다는 것이다.] (중략) 그러나 시민 여러분, 우리들이 그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지키려고 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의자 밑의 검붉은 반점들을 가리키며) 시민들이여, 여기 전왕의 피가 아직 식지 않고 있습니다. 그는 생전에 멋진 모자를 썼었고, 우리는 그 모자의 아름다운 형태를 수호해 왔었습니다. 그

이 콘텐츠에 관한 저작권은 (주)이감에 있습니다.

런 우리들이 그의 죽음을 용인했던 것은 저 알 속의 위대한 임금님의 실재(實在)를 믿었기 때문입니다.[→ 시민들은 알 속에 있는 위대한 임금이 당면한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고 시민들을 더 나은 방향으로 이끌 것이라는 믿음하에 전왕의 죽음을 용인했다.] 그런데 이제 와서 공룡 알이라고 믿는다면, 전왕의 고귀한 희생은 무엇으로 보상되어야 하며, 우리 시민들의 도덕적 타락은 어디에서 구제할 수 있겠습니까?[→ 시민들이 추구했던 이상을 되새김으로써, 공포를 조장하는 박물관장에게 현혹되지 않고 그러한 이상에 대한 지향을 견지하자는 것이다.]

➡ 시민 대표들은 박물관장이 제시한 질문의 대답만 찾느라, 그 질문이 제기된 상황에 대한 의문은 품지 못하고 있었다. 시민 라는 시민 대표들을 향해 자신들이 박물관장의 말에 놀아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만약 알 속에 든 것이 공룡이라면 전왕의 죽음이 헛된 것이 되어 버린다고 말한다. 시민 라는 시민 대표 중에서 자신들이 처한 상황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하고 질문을 던지는 유일한 인물이다.

시민 다 : (감동한다.) 그렇군요. 사기꾼의 헛말에 현혹될 뻔했습니다. (알을 가리키며) 나도 알 속에는 위대한 임금님이 계시다고 믿겠습니다.

시민 가 : 나 역시 알 속의 임금님을 믿습니다.

시민 나 : 나는 새삼스레 저 알 속의 임금님을 믿겠노라 말하진 않겠어요. 그것은 내가 사람이라는 사실처럼 자명한 일이니까.

(중략)

박물관장 : 미친놈들이군. 사람 잡는 공룡을 왕으로 삼으려 하다니. (시민 대표 나를 손가락으로 쿡 찌르며) 어디, 너 좀 말해 보려무나. 저 알 속에 든 건 공룡이 아니라 임금님이라고 믿는 이유를.

시민 나 : (확신에 가득 차서) 내가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 '중략' 전에 한 말처럼 자신이 사람이라는 사실처럼 자명하다는 의미이다. 그러나 이것은 사실이 아니라 근거 없는 믿음이다.

박물관장 : 누가 너더러 사람이 아니래? 알 속에 임금님이 들어 있다는 증거를 대 보란 말이야.[→ 믿음의 근거에 대한 박물관장의 공격]

시민 나 : (머뭇거리다가 시민 다를 가리키며) 이 옆 사람이 그것을 믿기에 나도 믿습니다.

➡ 시민들은 스스로의 힘으로 판단하고 결론을 내린 것이 아니라, 시민 라의 말에 감동하고 군중 심리에 휩쓸려 알 속에 임금이 있다고 믿기로 한 상태이다. 이처럼 취약한 믿음은 박물관장의 공격 앞에 무너져 내린다.

박물관장 : 그래? (시민 다에게) 넌 왜 믿지? 증거가 뭐야?

시민 다 : (우물쭈물하다가 시민 가를 가리키며) 이 옆 사람이 증거입니다. 나는 그를 따라 믿습니다.

박물관장 : (시민 가에게) 너, 대답해 봐.

시민 가 : (시민 라를 가리키고) 이 사람이 믿으라고 해섭니다.

시민 라 : (박물관장 앞으로 나서며) 인간의 도덕적 품성을 지키기 위해 나는 알 속엔 위대한 임금님이 계시다고 믿습니다.

➡ 정보가 제한된 시민들의 입장에서는, 결코 알 속에 무엇이 있는지 알 수 없다. 이러한 상황에서 시민들은 지향하는 가치에 대한 확고한 믿음을 바탕으로 판단을 내릴 수 있을 따름이다. 시민 라는 이러한 믿음을 지닌 인물이라고 볼 수 있다.

박물관장 : 허허, 무슨 뚱딴지같은 소릴 하는지 모르겠군. (공룡의 무서운 동작을 흉내 내며) 알 속에는 공룡이 들어 있단 말이야. 그 괴물이 부화되어 나오면 어떻게 되는 줄 알기나 해? 너희들은 잡혀 먹히거나, 아니면 대문을 닫아걸고 숨어 있어야 한다구. (알에 다가가서 위험한 물건에 손을 대듯이 슬쩍 만져 보고) 햇빛을 받아 알이 뜨듯해지기 시작했군. 이크! 벌써 꿈틀거린다. (공포에 질린 표정으로 달아나며) 살기 위해 나 먼저 달아난다!

➡ 하지만 그러한 믿음의 가치는 추상적이기에 현실적인 '공포'[→ 공룡이 불러일으키는 공포] 앞에서 쉽게 무력화된다.

시민 나 : 으악! (비명을 지르며 박물관장 뒤를 따라간다.)

➡ 지배자가 조장하는 공포에 의해 지배자의 의도대로 놀아나는 대중의 모습이다.

군중들 : (웅성거린다.)

박물관장이 시민 나의 목덜미를 잡아 이끌고 들어온다.

박물관장 : (군중들에게) 너희들, 보았지? (시민 나의 얼굴을 보여 주며) 이 무서움에 질린 얼굴을. 이 사람은 부모와 아내 그리고 어린아이들을 버리고 저 혼자 달아났어. 하지만 이 얼굴은 그래도 행복한 표정이다. 공룡에게 물렸을 때, 이 사람의 얼굴이 고통으로 얼마나 더 일그러질지 상상 좀 해 봐.[→ 공포감을 조장하는 말들이다.] 난 억지로 너희들의 임금이 되려고 이런 말을 하는 건 아니야. 너희들 스스로가 손을 들어 결정하라고 했잖아? 아주 자유스러운 분위기 속에서 말이야.

➡ 자신이 시민들에게 자유로운 선택의 권리를 줬다는 것이다. 그러나 시민들이 결코 해답에 도달할 수 없는 상태에서 공룡에 대한 막연한 공포심을 증폭시켰다는 점에서, 이 자유는 기만적인 것이라 할 수 있다.

➡ 외부의 적의 존재를 환기하며 공포감을 조성함으로써 권력을 찬탈하고 유지하려는 독재 정권의 속성을 떠올리면 이해에 도움이 될 것이다.

이 콘텐츠에 관한 저작권은 (주)이감에 있습니다.